

서녕 유씨 유서 연구

- 열녀 유서에 나타난 자기 진술의 의미를 중심으로

홍인숙*

<차례>

1. 서론
2. 열녀 유서들의 자기 진술적 요소
3. 서녕 유씨 유서에 담긴 자기 진술의 특징과 의미
 - 1) 딸을 위한 부모의 생애 전달
 - 2) 딸에 대한 음우(陰佑) 의식
4. 결론-자기 생애 기록이자 존재의 증명 언어로서의 유서

<국문초록>

열녀 유서는 죽음을 결심한 여성이 자신의 소회를 남기고 남아 있는 자들에 대한 당부 등을 전하는 글로, 원래 생애를 서술하는 성격의 글은 아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열녀 유서에 의도하지 않게 그 유서 작성자의 삶의 흔적과 관계성이 드러나게 되는 측면이 있음을 주목했다. 따라서 이 글은 유서가 자신의 존재와 생애에 대해 남긴 흔적으로서의 언어이자 자기 생애기록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관점을 취하며, 열녀 유서에 나타난 '자기 진술'의 양상과 특징을 밝혀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단독으로 조명된 적 없는 19세기 열녀인 서녕 유씨(1807~1831)의 유서에서 이 여성이 자신의 삶을 진술하는 텍스트로서 어떤 내용을 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했다. 현전하는 다른 열녀 유서들의 자기 진술의 양상을 서녕 유씨의 유서와 비교 검토하고, 이들과 달리 서녕 유씨 유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측면이 '딸을 위한 부모의 생애 전달', 딸에 대한 음우 의식'이라는 점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글은 열녀의 유서가 죽음 앞에서 회한의 감정을 토로하고 남은 이들에게 사회

* 홍익대학교 부교수

와 당부를 남기는 글만이 아님을 지적하려 했다. 열녀 유서는 유서 작성자의 개별적 인간성과 생애의 단편들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존재 증명의 언어이자 생애 기록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텍스트로 재조명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자 했다.

주제어 서녕 유씨, 여성 유서, 열녀, 유서, 자기 생애기록, 자기 서사

1. 서론

조선 후기 열녀 유서는 여성 문학사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들 유서는 열녀전이나 행장, 행록과 같은 남성 문인들의 기록들이 보여주는 이데올로기적 주체로서의 경직된 모습이 아니라 여성 개개인의 삶의 개별성과 다름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보여주며, 그들 각각의 생각과 판단, 관계와 감정, 상황의 맥락 등을 전달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열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 자결을 앞두고 여성들이 남긴 유서가 단지 도덕적이고 이념적인 판단만을 담고 있는 글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생애에 대해 남긴 흔적으로서의 언어이자 자기 생애기록으로서의 의의를 갖고 있다는 관점을 취하고자 한다.

현전하는 열녀 유서 다섯 편은 17세기 재령 이씨, 19세기 남원 윤씨, 서녕 유씨, 19세기로 추정되는 신씨 집안 며느리, 20세기 초 서흥 김씨의 것이다.¹⁾ 이들 유서 텍스트는 모두 작자 각각의 개성과 삶의 흔적을 드러내

1) 각 유서들의 원문 출처는 다음과 같다. ‘재령 이씨 유서’, 이수봉, 『규방문학에서 본 이조여인상』, 『여성문제연구』 1,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71. 20~21쪽. ; ‘남원 윤씨 유서’, 진동혁, 『공인 남원 윤씨의 명도자탄사 연구』, 『논문집』 19, 단국대학교, 1985. 28~32쪽. ; ‘서녕 유씨 유서’, 월촌문헌연구소 편, 『유씨부인 유서 권지단』, 『한글 필사본 고소설 자료 총서』 30권, 원광대학교 박순호 교수 소장본, 오성사, 1986. 181~213쪽. ; ‘신씨부 유서’, 필사본, 김규선 교수 개인 소장본. ; ‘서흥 김씨 유서’, 『종용록』,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본. ; 유서 관련

고 있으며 그들이 처했던 삶의 정황,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대상과 관계에 대한 당부, 죽음을 앞둔 당시의 감정 등을 곡진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글에서 핵심적인 분석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19세기 초 남편을 따라 자결한 열녀 서녕 유씨(1807~1831)의 한글 유서이다.

서녕 유씨의 유서는 1999년 임치균 교수가 학계에 소개한 이후²⁾ 부분적으로는 여러 번 언급되었으나 아직 단독으로 이 텍스트에만 집중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료의 원제목은 「유씨부인유서권지단」, ‘유씨 부인이 남긴 유서 한 권’이라는 뜻이며 102권에 달하는 『한글 필사본 고소설 자료 총서』 30권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소설 사이, 즉 「열녀전」과 「열녀춘향수절가」 사이에 목차상으로는 누락된 상태로 실려 있다.³⁾ 영인본 원문으로 볼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임치균, 「유씨부인 유서」, 『문헌과 해석』 6, 문헌과해석사, 1999. ; 임치균, 「서녕 유씨 부인 유서 연구」, 『고문서연구』 15, 한국고문서학회, 1999. ; 황재문, 「『중용록』에 나타난 열녀 인식」, 『규장각』,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9. ; 김정경, 「조선후기 열녀의 순절의 의미화 방식 연구- 재녕 이씨, 남원 윤씨, 서녕 유씨, 서흥 김씨 유서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53, 국제어문학회, 2011. ; 이홍식, 「조선후기 사대부 여성의 유서 창작 양상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9,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4. ; 홍인숙, 「열녀 유서에 나타난 감정 규범과 감정 통제의 기제- 신씨부 유서에 나타난 순응과 위반의 감정 언어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9,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9. ; 이홍식, 「조선시대 여성 유서(遺書)의 사회문화적 기능과 의미 탐색」,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20. ; 홍인숙, 「아홉 통의 유서로 복원한 한 조선 여성의 생애: 열녀 남원 윤씨의 고독한 삶, 그리고 뜻밖의 우정」, 『내가 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여성의 자기 서사』,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엮음, 후마니타스, 2023. ; 서경희, 「서흥 김씨에 대한 시선의 규율과 유서의 독법 -『중용록』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64, 한국고전문학학회, 2023.

2) 임치균(1999), 위의 논문.

3) 월촌문헌연구소 편, 「유씨부인 유서 권지단」, 『한글 필사본 고소설 자료 총서』 30권, 원광대학교 박순호 교수 소장본, 오성사, 1986. 181~213쪽. 여기 실린 여덟 편의 소설은 「열공명행록」, 「열녀전」, 「열녀춘향수절가」, 「열부유씨소적이라」, 「옥낭자전이라」, 「옥단춘전」, 「옥루몽권지일」, 「옥루몽제이」이다. 목차 누락은 영인본 편찬자의 착오로 짐작된다. 총서 30권의 앞 네 편은 필체가 동일하고 주제도 공통적으로 열에 관한 것인데, 열녀에 관한 소설들을 빼기던 필사자가 유씨 부인의 유서도 이들

때 한 행에 16자 내외, 한 면에 9행, 전체 34면이며 원고지 분량으로는 약 38매이다. 세 편의 유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문 14면 중간까지는 딸 ‘팽아’에게 주는 유서, 그 뒤로 31면까지는 시부모에게 남긴 유서, 34면까지는 ‘자탄의 글’이다.

이 글에서는 서녕 유씨의 유서가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진술하는 텍스트로서 어떤 내용과 특징을 담고 있는지 상세히 읽어내는 것에 일차적인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현전하는 다른 열녀 유서들에서 자기 진술적 양상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비교 검토하고, 서녕 유씨 유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자기 진술의 요소는 어떤 것인지를 ‘딸을 위한 부모의 생애 전달’, ‘딸에 대한 음우 의식’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열녀 유서의 자기 진술적 요소

원래 유서는 사사나 자결 등 임종을 앞두고거나 죽음을 결심한 사람이 쓰는 글로, 자손들에게 유교적 가치를 담은 유훈을 남기거나 상장례와 제례, 가훈이나 가풍에 대한 당부를 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유서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남성 유서는 대부분 자손들에게 강한 구속력을 갖는 가훈이자 예학의 실천을 강조하는 유훈으로 기능하면서 목적성이 강한 글로 전수되었다는 것이 기존 연구의 주된 견해이다.⁴⁾ 이와 대조적으로 조선시대의 사대부 여성들의 유서는 주로 자결한 열녀들의 것이며 유한(遺恨), 자탄과 같은 내면의 감정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⁵⁾

소설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고 함께 필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4) 이홍식(2020), 앞의 논문.

그런데 본고에서 주목하는 바는 여성 유서가 갖고 있는 ‘의도치 않은’ 자기 진술적 요소이다. 유서가 본래 ‘자기 생애’를 서술하는 글이 아니라 죽음 뒤에 남겨질 이들에 대한 부탁과 당부를 주로 하는 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유서, 특히 몇몇 열녀 유서에서 자기 삶에 대한 서술이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때 ‘자기 진술’이라는 표현은 애초에 자신의 삶에 대한 기록을 의도하고 쓴 여성들의 자기 생애기록⁶⁾의 서사처럼 체계화된 방식으로 제시되는 논리적 진술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컨대 자서전적 글쓰기의 연대기적이고 순차적인 회고의 성격, 또는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기 서사의 구조와 같은 요소들을 유서의 자기 진술에서 발견하기는 어렵다.⁷⁾

이 글에서 말하는 여성 유서의 자기 진술은 그 작성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주는 모든 서술, 그 인물의 삶과 상황을 유추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든 진술을 말하는 의미로 쓰고자 한다. 이는 그 인물의 친정이나 시댁 가문에 대한 서술일 수도 있고 죽음 당시 그 인물을 둘러싼 가족 관계에 대한 것일 수도 있으며 그의 나이, 성품, 재산, 친소 관계, 중요시한 것 등 그 자신에 대해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주는 진술이라는 의미로 쓰고자 하는 것이다.

열녀로서의 죽음을 택하는 인물들은 삼종의 중심인 ‘남편을 죽게 한 인물’이라는 입장에서 유서를 남기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유서에서 핵심 전

5) 이홍식(2014), 앞의 논문; 열녀 유서에서의 희생양 모티프와 자객 시련의 이유와 배경에 집중한 연구, 조선시대 여성에게 권장된 감정 문화와 감정 규범 등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정경(2011), 앞의 논문; 홍인숙(2019), 앞의 논문.

6) 조선시대 여성들의 대표적인 자기 생애 기록은 한산 이씨의 <고행록>, 혜경궁 홍씨의 <한중록>, 풍양 조씨의 <자기록>과 같은 작품이 있다.

7) 자서전과 자기서사에 대한 정의는 다음을 참고했다. 장영은, 「근대 여성 지식인의 자기서사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김호정, 「1920년대 영미 여성 미술가들의 자서전 집필과 자기서사에 대한 고찰」, 『현대미술사연구』 42, 2017.; 조혜진, 「조선후기 여성의 자기 서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언은 ‘왜 남편의 죽음 직후가 아니라 그때 죽음을 결심하고 실행하는지’를 설명하는 ‘해명과 변론’의 내용이 될 때가 많다. 그러한 해명과 변론을 위해 자기의 처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드러나는 것이 그가 처해있던 삶의 상황과 맥락, 그를 둘러싼 주변 관계와 그의 처지,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과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인 것이다. 자기 생애를 말할 의도로서 진행된 적극적인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유서 작성자의 자기 진술은 대개 산발적이고 파편화된 형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진술의 조각들을 재구성할 때 그 인물의 인간적인 흔적과 그 대략의 삶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게 된다.

다음 두 자료, 기본적인 생애 정보가 전혀 없었던 ‘신씨부 유서’와 한문 기록에 의해 생애 정보의 보완이 가능했던 ‘남원 윤씨 유서’를 비교 검토하면서, 조선 후기 열녀 유서에서 자기 진술적 요소의 양상은 어떠한지, 여성 유서의 자기 생애 진술은 어떤 성격과 특징을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① 저 같은 자부(子婦)는 만만 가지로 불효로소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죽어야 설움이 없을 것이요 원통한 것을 면할 것이니 제가 세상을 버리옵니다. …… 남편의 초상 때 죽으려 힘썼으나 남 못 죽게 헛태기가 있어서 혹 태기가 적실할까 그 망극 중에도 …… 혹 세상에 났던 자취가 있을런가 하여 아니 죽고 살았으나 점점 험한 거동만 보게 되고 …… 또 한 일은 은순이가 그제야 갓난애가 되어서 …… 젖줄 놓지 않고 그저 먹는데 내가 곧 죽으면 저 어린 것이 젖도 못 얻어먹고 긴 목숨 그저 채우쳐 죽어버리면 …… 내 죽은 귀신인들 눈을 감고 돌아갈 길이 없고 …… 차마차마 아버님 어머님 하도 애쓰시고 하도 걱정들 하시기에 못 죽고는 친정으로 가니 심회 망극하고 섭섭했습니다. …… 실로 속썩은 것을 생각하오니 목이 막혀 성하게 남지 못하고 속이 타 흉악하옵니다. …… 죽지 않고 살면 점점 험한 꼴만 볼 것이라 죽습니다. 죽으나 사나 시택에 가 죽어야 옳은 일이나 칠월 제사에 맞춰 방법을 차려 달라 했으나 안 해주시니 할 수 없사옵니다.⁸⁾

② 오라버님 내외 보시오. 나는 병인년 7월 24일에 죽을 사람이로되 시부모와 친부모 계시고 쓸데없는 딸자식 하나 있는 연고로 썩 명을 끊지 못하고 이때껏 근근히 명을 보존하였소. 그런데 이제는 노친들이 차차 돌아가시고 나로 말해도 양자를 정해 며느리까지 얻고 딸자식 하나 있는 것도 성혼하여 아무 데도 걸릴 것이 없으나 다만 오라버니 같은 이는 세상에 다시 없으신데 몹쓸 동생이 저버리고 죽사오니 몹쓸 것이 여동생이요. …… 착하신 오라버님을 버리고 죽으니 몹쓸 것이 여동생이요. 9)

위 유서는 작자와 가문에 대한 연관 정보가 전혀 없으며 맨 앞의 내용 일부가 유실된 상태의 낱장의 두루마리로 발견되었다. 유서 속에서 스스로를 ‘신씨 가문의 며느리’라고 지칭하는 표현이 있어 ‘신씨부(婦) 유서’로 불

8) ‘날가탄 조부(子婦)는 만(萬萬) 가지로 불효로소니다 아모리 심각하와도 죽어야 설운니 업슬 거시오 원통하은 거슬 면홀 거시오 니제 세상을 바리옵는니드 …… 초상시(初喪時)네 죽기를 힘쓰더니 남 못 죽게로 헛 티기(胎氣)가 니셔서 혹 티기가 적실(適實)할가 그 망극(罔極) 중의도 …… 혹 세상의 낫던 자취가 니실넌가 해야 안니 죽고 스러서 점점 험하은 거동만 보옵고 …… 또 혼 일은 은순니가 그제야 가르슬니 되넉습기로 …… 짓줄 노치 아니코 그저 먹는디 나 곳 죽으면 저 어린 거시 짓도 못 어더먹고 긴 목숨 그저 조초와 죽어바리면 …… 니 죽은 귀신인들 눈을 감고 도라갈 길니 업고 …… 츠마 ” 아바님 어마님 하 이쓰시고 험 걱정들 호오시기로 못 죽고 본집으로 가지 향하은니 심회 망극 극히 션습더니다 …… 실노 속석님을 심각하오니 목기 막혀 성치남지 못하이 속니 타노라고 흉악하와니다 …… 죽지 안니코 스오면 점점 험하 골만 보올 거시오니 죽습는니다 죽으나 사라스나 식덕의 가 죽어나 올흔 일니오나 칠월 제사 밋쳐 길을 차려 달나 혼나 안니 해야 주시오니 홀 닐 업스와니다’, ‘신씨 가문 며느리 유서 원문’, 홍인숙, 『조선 후기 순절 여성 신씨부 한글 유서 재론』, 『고문서연구』 45, 한국고문서학회, 2019.

9) ‘오라버님 내외 보시오. 나는 병인년 칠월 스무 스흔날 죽을 슝니로되 시부모와 친부모 계시고 쓸데없는 딸자식 하나 있는 연고로 썩 명을 끈들 못하코 잇썩궂 근” 명을 보존하옵던니 이제는 노친들리 차차 상스(喪事)들리 나오시고 날노 당하와도 양조(養子) 정하야 며느리까지 얻고 딸자식 하나 잇다가 성혼하코 지금은 죽어도 아모디 걸릴 디가 업스오나 다만 오라버님 갓타신 니는 세상의 다시 업스온디 몹쓸 동생은 저버리고 죽스온니 못을 거스 너동심니로소니다’, ‘신씨 가문 며느리 유서 원문’, 홍인숙(2019), 위의 논문.

리는 이 자료는 그 유서의 내용만으로 유서 작자의 생애와 그가 맺었던 관계, 인물의 특징적 측면을 일정하게 재구성해 낼 수 있는 단서들을 제공하는 일례를 보여준다.

신씨 가문 며느리의 유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이 인물이 시부모에게 가졌던 원망의 감정과 불화의 관계,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친정 오빠 내외에 대한 고마움과 빛진 느낌, 미안함의 감정이다. 시부모에게 남긴 유서 ①에서는 이 인물이 남편의 죽음 이후 ‘헛태기’, 즉 임신 징후를 오해하는 사건이 있었음을 알려주며, 당시 젓먹이였던 어린 딸에 대한 연민 때문에 자결을 미뤘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이 인물이 ‘친정’으로 가면서 ‘심회 망극하고 섭섭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원치 않는 출가를 당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자기 남편의 제사를 위해 시댁에 오고 싶었으나 ‘방법을 차려주지 않아’ 가지 못했다는 것, ‘목이 막힐 만큼 속이 썩고 타고 흉악함, 심회 망극함’을 고백하며 시부모에게 억울함과 원통함을 호소하는 것을 볼 때 고부, 구부간의 관계가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된 것이었음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인물이 남긴 또 다른 유서는 친정 오빠에게 보낸 것인데 이 유서에는 자신이 ‘시부모, 친부모’가 계셔 못 죽었다가 ‘이제 노친들이 차차 돌아가시고 양자와 며느리를 얻었고 딸도 성혼시켰다’고 하여 앞선 유서 이후 십수년이 흐른 뒤까지 이 인물이 삶을 지속했음을 알게 해준다. 또 시부모에게는 ‘불효 자부는 어서 죽어야 한다’거나 ‘살아서 점점 험한 꼴만 본다’는 등 공격적인 언사를 보였던 이 여성은 친정 오빠에게는 ‘오라바님 같은 신이 세상에 다시 없다’, ‘몹쓸 것이 여동생이다’, ‘착한 오라버니를 저버리고 죽어 미안하다’와 같이 고마움과 미안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이 인물이 쫓겨나듯 강제로 돌아온 친정에서는 오빠와 친정 가문의 보호를 받으면서 비교적 평온한 시간을 보냈으며 딸의 혼사와 양자의 입적까지 완수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한문으로만 남아 있는 9통의 남원 율씨의 유서 역시 그의 생애에 대한 의도치 않은 자기 진술의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음을 보기로 하자.

③ 저 죽은 후 가사 범백은 모두 형님의 뜻대로 하시고, 중간 술은 점열에게 주시며, 금이는 형님 생각대로 주실 수 있는 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슬프도다, 우리 형님이 이러한 액경을 당하셨으니 가련하나 어찌하겠습니까. 장릉과 유기 등은 다행히 잘 두었으니 앞으로 후사를 정한 뒤를 기다렸다가 전해주시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점열은 제 장례 후에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하시되 다만 환곡을 많이 먹었으니 추수를 기다려 갚은 후에 그 스스로 가게 하십시오. 이곳에서는 결코 살지 않도록 하시고 제 삼년상이 끝나는 것도 기다리지 말게 해주십시오. 슬프도다, 우리 형님은 어찌 사시겠습니까. 다만 아우의 집안일을 자기 물건처럼 보시기를 꺼리지 말아 주십시오. 혹 주변에서 사람들이 시비하는 말이 있어도 또한 개의치 마십시오. - 형님 전 영결서 큰동서¹⁰⁾

④ 남편의 상을 당한 후 내 마땅히 따라야 하나 한편으로 장례 치르기를 기다리고 한편으로 연기의 행차(연기현감인 친정 부친의 방문)를 기다리느라 이제야 죽는다. 그런데 마침 날씨는 염천이고 방 밖에는 바람이 많이 부는데 서울에서 사오기를 기다려 염하려면 여러 날이 걸릴 것이다. 그러면 시신이 정결치 못해 분명 남의 눈에 보기 싫을 것이니 이것이 슬프다. 내가 죽은 후 삼년상 기다리지 말고 가을에 추수 수확하여 갚은 후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금이 면천하는 일은 문적으로 남겨 놓았으니 내가 갖고 와서 보여라. 목면 치마와 가위, 칼은 금이를 찾아서 주고 자물쇠와 작은 술은 내가 써라. - 점열에게 남긴 유서¹¹⁾

10) '身後家事凡百, 兄皆主張, 中鼎給于点烈, 今伊則隨兄意, 可給之物, 給之好矣. 哀哉, 吾兄當此厄境, 雖憐奈何, 衣籠鑰器等件, 幸善收置, 待他日定嗣後, 交手付與, 是望是望. 点烈則弟葬後任其所之, 但多食還穀, 待秋備納後, 使之自去, 而此處則, 決不可居生. 無令待我三喪之畢焉. 哀哉, 吾兄何以爲生乎. 但以弟之家事, 視若自己物, 勿以爲嫌,' '兄主前永訣書 伯姒氏', 진동혁(1985), 앞의 논문.

11) '主君喪後, 吾當即隨, 而一待斂葬, 一待燕衙行次, 今則逝矣. 而適當炎天, 房多外

- ⑤ 네가 나와 서로 만난 것은 열 살 전이었다. 명색은 노비와 주인이었으나 정은 동기와 같고 사랑하기는 자식과 같았다. 함께 타향에 와서 어려움을 견딘 것이 장차 이십 년인데 그 충성스러움이 한결같기를 옛 사람들보다 더한 것이 많았으나 내가 죽음을 앞두니 심신이 흔들리고 생각이 못 미쳐 백에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다. 너의 소생은 남매라고 하나 세 살 먹은 아들은 어릴 때 이미 병에 걸려 생사를 분간하지 못하며, 또 한 아들은(속랑을) 허락했으니 열한 살 된 금이가 훗날 마땅히 번창할 것이다. 훗날 후사 정하기를 기다려 다만 금이 한 몸의 값으로 사십 냥을 한씨 가문 양반에게 줄 테니 만약 이것이 적다고 한씨 윤씨 양가 자손 중에 금이의 소생에 대해 혹 시비나 다른 말이 있거든 이 유서를 갖고 가서 변증하라. - 점열의 젊은 딸에게 남긴 유서¹²⁾
- ⑥ 내가 그나마 살았던 것은 모두 그대의 은덕인데 그 만분의 일도 갚지 못하고 이 몸이 또 죽어 그대에게 슬픔을 끼치니 더욱 원통하고 한스럽다. 약간의 물건을 보내니 그것을 팔아 값을 받아 비녀와 모시 값으로 사당에 매안(埋安: 신주를 땅에 묻는 것)하는 비용으로 쓰기를 지극히 바라고 바란다.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고 급히 목숨을 끊으려니 일이 어렵고 마음도 나쁘다네. - 유모에게 남긴 유서¹³⁾

위 예문은 가문에서 제작한 「언행록」을 통해 시덕과 친정 가문의 배경,

風, 京質成斂, 易致多日, 侍體不潔, 必厭人眼, 是可悲也. 我死之後, 無待三喪, 秋糧輸納後, 任汝所之. 今伊之免賤, 書留文跡, 汝其拽見, 木裳剪刀, 推給今伊, 鎖金小鼎, 汝其用之.’, 『遺点烈書』, 진동혁(1985), 위의 글.

- 12) ‘爾我相逢在十歲前, 名雖奴主, 情如同己, 愛亦如子. 偕至他鄉, 備經艱難, 將逝卅年, 而其忠如一, 邁于古人者, 亦多有之, 而余當長逝, 心身迷短, 百不記一. 爾之所生, 雖曰甥妹, 三歲兒子, 已嬰奇疾, 不但生死之未分, 而一子則許給, 十一歲今伊, 後當蕃昌. 待日後定繼嗣, 只以今伊一身價, 四十兩, 納于韓門兩班, 而若以此爲少, 韓尹兩家子孫中, 或有是非雜談, 於今伊所生者, 持此遺書, 以爲卞正事.’, 『点烈小婢遺書』, 진동혁(1985), 위의 글.
- 13) ‘我之所以偶生, 皆君恩德, 而未報其萬一, 此身又捐, 貽君悲念, 尤切冤恨, 有若干物送付, 賣之東價, 并與芋, 價用作祠宇埋安之資, 至望至望. 更不相見, 徑絕性命, 事則難矣, 懷亦惡矣.’, 『遺乳母書 卽恭人外家婢子也』, 진동혁(1985), 위의 글.

남편과 유서 작자인 여성에 대한 기본 정보가 밝혀진 자료인 남원 윤씨(1768~1801) 유서이다. 남원 윤씨의 부친은 연기 현감을 지낸 윤상흠이며 생모 청풍 김씨가 네 살 때 세상을 떠난 후 계모 이씨와 두 번째 계모 성씨의 손에서 컸다. 남편은 청주 한씨 가문의 한진구이며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윤씨는 서른셋의 나이로 남편을 따라 죽었다. 윤씨의 유서는 원래는 한글로 작성되었으나 한문으로 한역(漢譯)된 상태로만 전해지는데 이 유서 들에는 공식적 생애 기록인 「언행록」의 전형화된 열녀 서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이 여성의 삶의 이면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가 남긴 아홉 통의 유서 중 다섯 통은 가족들, 즉 친정 부모와 남동생, 시댁 당숙과 친정 숙부에게 남긴 것이고 네 통은 자신을 돌봐준 큰동서와 여종들, 유모에게 남긴 것이다. 윤씨의 유서는 아홉 명이나 되는 많은 대상에게 남겼다는 점에서도 이례적이지만 그 중 네 명이 윤씨와 각별히 가까웠던 형님과 여종들이라는 점에서도 특별하다. 특히 그가 남긴 유서들에서 가장 큰 당부이자 부탁은 늙은 여종 점열과 그 딸, 손녀의 삼대가 동네를 멀리 떠나 살라는 것, 그리고 그 손녀딸 금이의 면천을 반복적으로 요청하고 다짐하는 내용으로, 이는 그의 친정 부친과 시댁 당숙에게 남긴 유서에서도 가장 강조된 사안이다.

위 ③은 큰동서, 즉 형님에게 남긴 유서인데 여기서 윤씨는 모든 것을 ‘형님 뜻대로’ 해도 된다거나 ‘아우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보아달라’, ‘남들의 시비에도 개의치 말아달라’고 부탁할 만큼 전적인 신뢰를 드러내고 있다. 그는 형님에게 ‘점열과 금이’에게 줄 물건을 지정해주기도 하고 ‘점열 모녀 삼대’가 자기 삼년상을 치르지 못하게 하도록 부탁하기도 하며 부디 멀리 보내달라고 한다.

이때 언급되는 여종 ‘점열’은 유서 ④에서 ‘내 성품은 네가 잘 알 것’이라고 말할 만큼 가장 긴밀하게 생활에 연결되어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윤씨는 날씨가 더워져 자기의 자결 후 시신이 정결치 못할 것을 여러

유서에서 반복적으로 걱정했는데 그러한 사후 자신의 시신 수습을 맡기는 인물이 바로 여종 ‘점열’이다. 윤씨는 그 점열의 딸 ‘점열 소비(小婢)’에게도 따로 유서 ⑤를 남기고 있는데 여기서 윤씨는 자기와 같은 또래의 이 젊은 여종을 ‘열 살 전에 만나 이십 년 넘게 동기처럼 정을 나눈 사이’라고 하며, 그의 열한 살 짜리 딸 ‘금이’를 속량할 돈 ‘사십 냥’을 남겨주면서 아이가 앞으로 ‘번창’하게 잘 살아야 한다는 유언을 남긴다. 그리고 ‘금이’의 면천에 대해 자기의 친정과 시택, 한씨와 윤씨 양가에서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자신의 유서를 갖고 가서 변증하라는 말을 남겨, 젊은 여종의 딸의 속량이라는 사안을 자신의 생애 최후의 과제인 것처럼 말한다.

⑥은 윤씨가 네 살 때 세상을 떠난 자신의 생모의 집안인 외가 청풍 김씨 가문에서 자신을 길러주었던 유모에게 남긴 유서이다. 여기서 윤씨는 어린 시절의 유모 덕분에 자신이 살 수 있었다며 고마움의 정을 표하기도 하고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을 고백하는 등 앞서 늙은 여종 점열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이 유모와의 관계 역시 긴밀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할 점은 윤씨가 외가 청풍 김씨의 사당 매안 비용을 자기 개인의 사재로 처리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찍 잃은 생모의 존재와 그 배경인 외가 김씨 가문에 대해 이 인물이 생전에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던 자손으로서의 책임감과 유대감을 죽음 직전의 말인 유서를 통해서 비로소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신씨부 유서나 남원 윤씨 유서에서 읽어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애초에 자신의 삶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유서를 통해 그들의 삶의 궤적과 중요한 관계, 그리고 인간적 면모와 같은 생애 요소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신씨부 유서에서 유서 작성자인 여성은 남편 사후 ‘헛태기’로 인한 좌절을 겪었고 그후 시부모와 극렬한 대립과 갈등을 경험했으며 원치 않는 친정으로의 출귀를 당했다. 친정 가문에 돌아온 이후에는 오빠 내외의 정성어린 보살핌을 받으면서

딸 ‘은순’을 키워내 민씨 가문으로 출가시켰으며 양자와 며느리까지 얻은 뒤 다시 자결을 감행하였다.

남원 윤씨의 생애를 기록한 한문 자료 「언행록」에서 윤씨는 부모와 아우, 시댁 당숙과 숙부에게 각듯한 예의를 갖추고 일찍 잃은 어머니의 뒤를 이어 들어온 계모 이씨와 성씨에게 성심을 다하는 효열녀의 전형적 인물로만 제시되었다. 그러나 그가 직접 남긴 유서들에서는 공식적 생애 기록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존재들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었음이 드러난다. 그는 큰동서, 여종들과 내밀한 신뢰와 유대감을 나누며 살았고, 자신과 같은 또래였던 젊은 여종의 딸을 면천시키는 것을 죽어서도 해야 할 가장 큰 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윤씨는 유모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생전 계모들에게 효성을 다할 뿐 존재를 언급하지도 않았던 생모 청풍 김씨의 존재를 강렬하게 환기시키고 외가의 후손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이 두 편의 유서는 두 여성의 개별적 인격체로서의 개성과 그들 삶의 전체상, 그들이 각각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인물, 그들과 맺었던 관계의 성격 등을 간략하게나마 환기하고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는 유서가 작자의 자기 정체성의 표현이나 생애 회고를 목적으로 한 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가치와 관계에 대한 언급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인물만의 개별성과 독자성을 읽어낼 수 있게 해주는 텍스트임을 잘 보여준다.

3. 서녕 유씨 유서에 담긴 자기 진술의 특징과 의미

앞 장에서 다른 열녀 유서들의 내용을 통해 그 작성자 여성의 삶에 대해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서들이 의도치 않은 자기 진술적 요소로 드러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한 자기 진술적 요소를 통해 작자의 성품을 읽어 볼 수 있기도 하고, 그가 생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물들에 대한 감정과 친밀함의 거리를 알 수 있게 되기도 하며, 공식적인 기록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그 인물의 내밀한 관계의 우선순위가 드러나고 있음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 장에서는 서녕 유씨의 유서에서 자기 진술의 특징과 의미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서녕 유씨(1807~1831)는 울산 김씨 월평파의 김응휴(金膺休, 1806~1830)의 처로 남편이 과거 급제 후 병사하자 1년 뒤 기제사를 앞두고 자결한 여성이다. 그는 딸과 시부모님 앞으로 된 두 통의 유서와 지탄의 심정을 담은 짧은 유서까지 세 통의 유서를 남기고 있는데¹⁴⁾ 여기서도 앞선 유서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생애에 대한 부분적인 서술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가 유서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자기 진술적 요소는 자결을 결행하던 당시 다섯 살의 딸 ‘팽야’를 위한 발언으로서, 그 인물을 중심에 둔 발언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한 측면을 ‘딸을 위한 부모의 생애 전달’, 딸에 대한 음우(陰佑) 의식’이라는 차원에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

1) 딸을 위한 부모의 생애 전달

- ⑦ 슬프다! 가련하고 불쌍한 내 팽이는 어미가 보고 싶을 때면 이 편지라도 보거라. 내 비록 팔자가 흉악하여 스물 넷에 박명한 인생이 되었으나 우리 부모님은 만경 부사, 양주 군수로 총애를 받았고 입고 먹는 것에 부족함이 없었으며 큰 가문에서 편안함을 누렸다. 내 한 몸이 부유한 집안에서 호사로 자라서 열여섯 살 임오년 여름에 성혼했다. 네 부친은 나보다 한 살 많아 열일곱 살에 특별히 훌륭한 인물이었다. 옥 같은 풍채의 가장으로

14) 김응휴의 동생인 김경휴가 노사 기정진에게 부탁하여 남긴 「열부유씨정려기」에는 유씨가 친정 부모님께 남긴 유서도 있다고 했는데 친정에 남겼다고 하는 것은 전하지 않고 있다. 奇正鎮, 「烈婦柳氏旌閭記」, 『蘆沙集』, 한국고전종합 DB.

세상에 이름이 났으니 또한 우리 집안의 사랑하는 사위라 말하곤 했다. 네 부친은 삼남 전체에 이름이 났으니 평소 내가 두려워했던 것은 그 이름이 너무 과함을 염려했는데 아아, 어찌 홀로 네 부모에게 이런 일이 날 줄 꿈에나 생각하였으리오.¹⁵⁾

⑧ 성혼한 지 오년 만에 너를 병술년(1826) 4월에 낳았는데 비록 네가 딸이나 미목이 특별하며 전의 네 부친과 다름이 없는 고로 네 부모가 귀하게 여김이 만금 보물과 같았다. 나라의 은혜가 매우 크셔서 정해년(1827) 별시에 부모를 기쁘게 할 경사를 당하니 너의 부친 나이가 이십이 세였다. 세상에 흔치 않은 이른 과거급제라고 온 나라가 일컫고 만인이 우러러 봄을 받았더니¹⁶⁾

⑨ 슬프다. 조물이 시기하여 원수같은 무자년 시월에 백양이라는 절로 공부하시러 너의 작은아버지와 함께 가시더니 우연히 해소와 기침, 독감으로 여러 달 신음하시는데 약 쓰기를 뜻대로 할 길이 없어 봄과 여름을 보내면서 증세가 위중해지셨다. 하다못해 이른 가을 그믐날 사창 지역 의원을 찾아가셨으나 충분한 효험을 못 보시고 매달 위태해지시는데 너의 집이 본래 의약을 잘 쓰지 않고 의논할 이가 없는 고로 그 병환 중에도 칠팔 개월을 고생하셨다. 결국 조금도 차도가 없고 날로 위중해지니 이월 십일 집에 돌아와 이십육일 만 아아, 슬프도다. 삼월 육일에 이 변을 만나오니

15) ‘통재(痛哉)라 가련코 잔잉한 너 평으난 어미 보고 시분적이어든 이라도 보라 너 비록 팔즈 흉악하야 삼팔(三八)의 방명(薄命) 인생 되어시나 우리 부모님니 만경양쥬로 총(寵)을 밧고 의식(衣食)의 구이(拘礙)흠미 업고 벌열(闊闊)한 안향(安鄉)의 일신(一身)니 부가호치(富家豪侈) 중 심하야 이팔년광 임오(壬午) 중하(中夏)의 성혼하니 …… 부친은 일연(一年) 우히라 십칠세의 특달선미(特達善美) 하시미 육인가장(玉人家長)으로 세상의 유명 하시니 또한 우리집 인서(愛婿)라 이라던지라 너 집부명(父名)은 삼남(三南)의 가(可) 하미 너 평일 두려우미 부명니 과(過)흠을 염려 하엿더이 오히라 엿지 홀노 네 부계 이인 희망니 나일줄이야 꿈의나 생각하앗시오.’

16) 성혼 오연의 너을 병상(丙戌) 스월의 나흐나 비록 딸이나 미목(眉目)이 그이(奇異) 흠미 전해 너의 부친으로 다라미 엄난 고로 네 부모의 귀함이 만금장쥬(萬金藏珠)라 기라고 국은(國恩)이 호대(浩大) 하서 정희(丁亥)년 별시(別試)의 열친경사(悅親慶事)랄 당하니 네의 망친(亡親)의 연(年)니 이십이 세라 세상의 흔치 아인 조과(冢科)라 경향(京鄉)이 일컫고 만인의 흠양(欽仰)함을 바라더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지라.¹⁷⁾

서녕 유씨 유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적인 존재는 바로 유씨의 수신자인 딸 ‘팽아’이다. 위 예문 ⑦⑧⑨는 그 딸에게 주는 유서의 첫 세 문단으로, 여기서 유씨는 바로 자신과 남편의 생애에 대한 정보를 줄줄이 제시하는데 이 모든 서술은 딸을 위해 압축적으로 들려주는 부모의 생애 서사의 성격으로 보인다. 첫 문장으로 쓰인 ‘어미 보고시분 적이어든 이라도 보라’라는 말은 이 유서를 관통하는 그러한 유씨의 심정을 대변한다. 그것은 부모의 ‘부재’ 속에 자라야 할 다섯 살의 딸이 성장하여 부모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를 상정한 말로써, ‘이것이라도 보라’고 하는 이 유서는 부모의 존재를 대체하는 물건이자 부모의 생애사를 담고 있는 글로 쓰이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딸을 위해 들려주는 부모의 생애의 요약적 서술은 다음과 같다. ⑦에서 그는 자신이 자란 친정의 가세가 ‘벌얼한 큰 가문으로 ‘만경부사와 양주군수로 총애 받는 집안’이었으며 ‘의식(衣食)에 부족함 없이’ 편안함을 누리며 ‘부가호치(富家豪侈)’하게 자랐다고 소개한다.¹⁸⁾ 그렇게 친정

17) 슬푸다 조물이 시괴(猜忌)하야 원슈 무즈연(戊子年) 시월의 백양(白羊)이란 절노 공부하시러 네의 계부(季父)와 가시더이 우연 히천독감(咳喘毒感)으로 누월(累月) 신음하신디 의약을 뜻과 ㄹ치 흘 길이 업서 과춘과하(過春過夏)랄 하시나 증세 위중하신지라. 허다 못 밉츄(孟秋) 회일(晦日)의 스창으로 의원을 향하여 가겼더니 일분(一分) 효엄(效驗)을 못 보시고 달노 위황(危惶)하신디 너의 집 본디 의약의 등한(等閑)하고 향하야 의논하 리가 업난 고로 그 신환(身患) 중 칠팔식(七八朔)을 깃고(客苦)를 하시다 종시 일본 동정이 업고 날로 위중하시니 이월 순일(旬日) 환가(還家)하시 이십육일 만 오호통재라 삼월 초육일 이 변(變)을 만나오니 하늘이 문허지고 땅이 꺼지난지라

18) 유씨의 부친, 조부가 ‘만경부사, 양주군수’를 지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조부 귀락와(歸樂窩) 유광천(柳匡天, 1732~?)은 사간원의 장령과 승지 관직을, 부친 유동환(柳東煥, 1759~?)은 생원을 지냈다. 특히 유광천은 호남의 주요 인사였던 위백규와 가까이 지냈다. 별업을 지은 유광천의 집에 대해 위백규가 글을 써준 기록인 「귀락와서(歸樂窩序)」는 두 인물의 교류상과 당시 유광천 가문의 경제력을 알게 해준다. 위

가문의 배경을 소개한 후에는 자신의 나이 열여섯, 남편의 나이 열일곱에 성혼했음을 밝히고 있는데, 당시 남편의 풍채는 ‘특달선미(特達善美)’한 ‘옥인가장(玉人家長)’으로 ‘삼남’에 이름이 날 정도였으며 친정에서도 ‘사랑하는 사위(愛婿)’라 할 만큼 아름답고 뛰어난 인재였음을 강조하였다. ⑧에서는 혼인한 지 5년 만에 낳은 유서의 대상자인 딸의 출산과 남편의 과거 급제를 연이어 설명한다. ‘비록 딸이나 미목이 기이함이 너의 부친과 다름이 없었다’고 하여 딸이 부친을 닮았음을 알려주고 그런 딸을 ‘만금장주(萬金藏珠)’로 여기며 부부가 크게 아끼고 사랑했음을 밝힌다. 여기에 이어 남편이 스물두 살의 젊은 나이에 ‘조과(早科)’, 즉 이른 과거 급제를 하여 ‘경향’에 이름을 떨치고 ‘만인의 흠양’을 받는 인물이었음도 제시하고 있다.

이어지는 ⑨에서는 자랑스러운 존재였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병과 죽음의 과정을 요약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병의 시작은 ‘무자년(戊子年, 1828) 10월’ 백양사로 절 공부를 갔다가 ‘해천독감(咳喘毒感)’에 걸렸던 것으로, 다음 해인 ‘맹추(孟秋) 회일(晦日)’, 즉 7월 말 사창 지역의 의원을 들렀으나 효험을 보지 못했고, 제대로 약을 쓰지 못한 상태에서 또 칠팔 개월을 객지에서 지내며 위중해져 1830년 2월 10일 집에 돌아온 후 불과 26일 만인 3월 6일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⑩ 네 어머니가 비록 박명한 죄인이나 삼종의 무거운 의와 부부의 큰 인륜을 아는지라. 하늘같이 바라고 태산같이 우러르던 남편의 죽음을 만났으니 한 시간인들 어이 머물리오. 삼종을 다 따르지 못하게 되었으니 차마 내 어찌 참고 견디어 살리오. 가련하고 불쌍한 내 팽야야, 너의 부모가 다 없으니 어디를 향하며 누구를 의지할꼬. 어찌 팔자를 잘못 타고나서 이리 되어 너 하나를 저렇게 혈혈단신으로 만들었는고. 뼈에 새겨진 듯 서러워

백규, 「귀락와서(歸樂窩序)」, 『존재집』, 한국고전종합 DB.

라. 내 차마 어찌 눈을 감고 돌아가며 네게 못할 일인 줄 모르리요마는
네 선친의 일을 생각하니 마디마디 끊어지고 가슴이 막히니 차마 내가 어
찌 이 세상에 더 있을 뜻이 있으리오.¹⁹⁾

위 ⑩은 그러한 남편의 죽음 후 자신의 자결 결심의 과정과 이유를 밝히
는 대목이다. 여기서 유씨는 자신의 죽음이 ‘삼종의 의’와 ‘부부 대륜’을 알
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유교적 이념의 틀 안에서의 설명을
하기도 하고 ‘선친의 일을 생각하니 마디마디 끊어지고 가슴이 막힌다’는
인간적인 애통함과 기막힘을 그 이유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글에
서 그러한 피치 못할 자결의 결심 뒤에 가장 마음에 걸리고 안쓰러운 존재
로 부각되는 것은 고아로 남겨지게 된 딸, ‘가련하고 불쌍한 내 팽아’이다.
그는 자신이 ‘어찌 팔자를 잘못 타고나서 이리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탄식
하면서 딸 팽아를 ‘부모 없는 혈혈단신’으로 만들게 된 것에 대해 ‘뼈에 새
기는 듯 서럽다, ‘차마 눈을 감고 돌아갈 수 없다’는 말로 어린 자식에 대한
미안함과 회한을 토로한다.

이러한 서녕 유씨의 부부의 생애 서술은 앞선 유서들과는 조금 다르게
‘의도하고 작성한 자기 생애 진술’처럼 요약적이고 체계적인 인상을 준다.
자신의 친정 가문과 생장 배경을 소개하고 남편과의 성혼, 당시 남편의 선
비로서의 명성과 과거 급제, 이어진 출산과 딸을 얻은 기쁨, 남편의 병의
진행과 죽음의 과정 등이 순차적으로 서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

19) 네 어미 비록 방명죄인(薄命罪人)이나 삼종(三從)의 중혼 의와 부부의 대륜(大倫)
을 크게 으난지라 하늘갓치 브라고 티산갓치 우려던 천붕지통(天崩之痛)을 만나오
니 시킵인들 어니 머물이요 삼종이 다 못쳐지시이 츄마 니 엇지 줌고 견디어
술이요 가련코 잔잉흔 니 팽아야 네 부모가 다 업스니 어더을 향하며 누를 의지하올
고 엇지 팔즈랄 못 타 이리 되며 너 혼나을 저니 혈혈(子子)케 혼난고 각골 쉼려위라
너 츄마 엇지 눈을 감고 도라가며 네 못할 일이온줄 모라리요마난 네의 선친의 일을
싱각호오미 춘단(寸斷) 울고 흉격(胸膈)이 막히니 츄마 니 엇지 입어세상(立於世
上)할 뜻이 잇스리요

에 요약의 집중적이고 순차적인 서술은 혼자 지라야 할 딸 ‘팽아’에게 부모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⑪ 너는 부디 여자의 행실에 힘써서 행동을 경솔히 하지 말고 언행을 삼가라. 여자란 한 몸의 고락이 남편에게 매여있으니 그 무게가 태산과 같다. 조심하기를 얇은 얼음판 밟듯 하여 네가 할 노릇을 극진히 옳게 하면 비록 네 남편이 총명하지 않아도 절로 감동할 것이다. 네 얼굴과 행동거지를 보아서 영영 복과 영화를 누리 부모의 여한을 씻으려면 누가 가르치고 거두어 들일꼬. 아아, 슬프도다. 어디를 보고 배울꼬. 내 아이, 가련하고도 슬프도다.²⁰⁾

위 ⑪은 딸 팽아에게 전하는 가르침과 유훈이다. 그는 다섯 살의 어린 딸이 아니라 이제 막 혼사를 앞둔 시점의 딸에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여자의 행실에 힘쓸 것, 한 몸의 고락이 군자에게 달렸다는 것, 자기 할 바를 성심껏 하면 남편이 감응하게 될 것’과 같은 가르침을 전한다. 그리고 ‘네 얼굴과 행동을 볼 때 복과 영화를 누릴 것 같다’는 말로 딸의 타고난 자질이 뛰어난 것에 대한 칭찬과 모친으로서의 자부심을 은연중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말들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가장 깊은 감정은 그러한 딸을 끝까지 ‘가르치지도 거두지도’ 못하게 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슬픔, ‘어디 보고 배울 곳이 없게’ 된 ‘내 아이’의 처지에 대한 가련함과 연민이다.

이렇듯 딸 팽아에게 남긴 유씨 유서는 요약적으로 제시된 부부의 순차적 생애 진술이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유서들에서와 달리

20) 네 부디 여행(女行)을 힘써 횡동의 경솔이 말고 언행(言行)의 삼가며 계집이란 게 일신고락(一身苦樂)이 혼 군자(君子)에게 매여나니 중히미 티손갓고 조심하말 박빙(薄氷) 밟듯하야 니 노릇 극진이 옳게 하면 비록 불명(不明)하도도 절로 감동하니 네 얼굴과 거동을 보아서 영영 행복(享福)을 영화(榮華)를 누리 부모의 여한(餘恨)을 시스려면만 누 가라치며 거두어딜고 의의익이통재(依依哀哀痛哉)라 어디를 보 배울고 니 아히 가련가석(可憐可惜)하도다

일정한 목적을 갖고 서술되고 있는 듯한 이러한 자기 생애 진술의 특징적 국면은 유씨가 유서를 쓸 때 염두에 두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다섯 살의 팽아’이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파악된다. 부모를 잃고 혼자 남겨질 어린 딸에게 ‘이것이라도 보라’고 하기 위한 부모의 대체품으로서의 글이 담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은 부모의 존재감을 전해줄 수 있는 이야기, 그들의 삶의 흔적이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2) 딸에 대한 음우(陰佑) 의식

⑫ 며느리의 나이 열여섯에 귀한 가문의 성대한 이름을 의지하온지 이제 구 년이옵니다. 어리석은 저의 누추함과 박덕함을 헤아릴 수 없고 성품과 행실도 모자라온데 시어머니 크신 은혜가 산과 같아 제 한 몸이 반석같이 든든하고 영예와 부유함에 흠이 없었으니 항상 하늘을 볼 수 없을 만큼 전전궁궁하였습니다. …… 시아버지께서 죄인의 남은 목숨을 극진히 권하시니 뼈에 새겨 원통함을 참고 한을 품어 날을 보내고 달을 보냈습니다. …… 외로운 제 인생을 시아버지께서 각별히 보시고 간절하신 소회를 말씀해주셨는데 이를 생각하면서도 저버리니 예의와 염치를 모르는 죄입니다. …… 제가 본래 살기를 도모하지 않았기에 시아버님의 성은이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 서울에 가신 서너 달에 괴롭게 틈을 타니 …… 시어머니 성을 생각하니 심장이 먼저 떨어져 돌아가옵니다.²¹⁾

21) 식부 나히 이팔의 존문의 성명(成名)을 의지하완지 세지구연(歲在九年)이라 우인(愚人)니 불측천누박덕(不測賤累薄德)호옵고 성행(性行)이 불미호온디 존당 성은 이 산 갓스와 일신이 반석갓고 영부(榮富)이 무흠(無欠)호오니 항상 불승첨천(不勝瞻天)호와 궁가축축(窮窮屬屬)호오며 …… 존구게옵서 죄인의 잔명(殘命)을 극진 권구하시믈 각골하야 원을 참고 한을 품어 향혀 날을 보니고 달을 보니 …… 혈혈인 생을 존구 각별호오서 간절하신 소회와 말삼을 생각고 저바라오니 예의염치를 모라 난 죄요 …… 니 본디 살기를 도모호미 이야 과연 존구의 성은의 걸여더니 이제 경형차(京行次) 삼스식의 신고(辛苦)히 틈을 타미 …… 존당 성은을 생각호오미 심중이 만져 썩려져 도라가옵니다

시부모에게 남긴 유서인 ⑮에서 유씨는 특히 시부모에게 시종일관 정중한 태도와 극진한 예의를 흔들림 없이 전한다. 이러한 태도는 이들의 관계가 서로 책임과 예의를 다하며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였음을 알게 해준다. 유씨는 자신이 열여섯에 시집 와서 9년 동안 ‘천누박덕(賤累薄德)’하고 ‘성행불미(性行不美)’한 자신을 받아준 ‘존당의 은혜’ 덕에 시댁에서의 입지가 ‘반석처럼 든든하고 흠이 없었다고 말한다. 이는 시부모의 덕을 크게 높이는 겸손한 발언이면서 동시에 자신 역시 떠느리로서 큰 결함을 보인 적이 없었음을 드러내는 서술로 볼 수 있다.

유씨는 특히 시부가 자신에게 죽지 말 것을 곡진하게 만류했음을 밝히고 이들에 대한 감사와 죄스러움을 전하면서 고부, 구부간의 관계가 돈독했다는 생애적 사실을 드러내기도 한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시부가 자신에게 ‘잔명을 극진 권구’하고 ‘각별히 간절하신 소회와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여러 번 만류했는데 시부가 서울로 떠난 며칠 사이에 자결하는 것에 대해 ‘존구의 성은을 저버린 것’이며 ‘예의염치를 모르는 죄’라고 언급하기도 하고, 시어머니에게 ‘존당 성은을 생각하니 심장이 먼저 떨어진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시부모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 자신이 떠느리로서 보였던 책임감과 신뢰의 관계를 상기시킨 유서의 이러한 서술은 후반부에 자결 뒤에 남겨질 딸 팽아에 대한 긴 부탁의 내용으로 이어진다.

- ⑮ 뜻을 이미 정하였으나 다만 팽아가 비록 딸이라도 두 사람의 가련한 혈육이 그것뿐이니 근본을 생각한즉 귀함과 가없음이 그보다 더할 수가 없습니다. 시부모님의 깊은 뜻이 어찌 평범하시겠습니까마는 바라건대 시어머니께서는 손녀를 친딸로 아시고 보통 사람들의 딸과 같은 대접을 하지는 마시고 우리 대신으로 모든 일에 각별히 애답게 여겨주실 것을 믿고…… 저 아이 생긴 모양이 특별함을 갖추었으니 죽은 부모에게 육이 미치게 하지는 않을 것이요, 제 팔자가 순탄하여 어진 가장을 만나 평생 태평

하게 지내면 혼백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옳드려 바라건대 아버님께서 명문 좋은 가문에 재주를 겸한 짝을 얻어 영귀를 누리면 제 부모의 어짐이 이르렀음을 알게 하시옵소서.²²⁾

- ⑭ 저희 두 부부가 약간 가지고 있던 물건은 장차 아이가 쓸 것은 다 간수하고 며느리의 함 속에 있는 땅 문서 같은 것은 열심히 하기만 하면 십년 내 천여 금이 될 것이니 장차 저 아이가 의논하도록 따로 모아놓게 해주십시오. 아아, 사동의 친정아버지 정이 절박하오니 저 아이를 보아 며느리를 죄인으로 익선을 하도록 팽아를 보내시면 위로가 될 것이니 저 자란 도안, 순섬을 정하여 보내시고 막섬은 여기 두셔서 왔던 이름이나 있게 해주십시오. 가문 간에 상의하셔서 아버지의 생전 은의를 온전히 하시고 정을 완전하게 하여 팽아를 보셔서 연락을 끊지는 마옵소서. 저 아이를 보내오나 노친이 가산을 나눠 주시고 빈손으로 계시니 제 옷과 먹을 것은 알아서 챙겨 보내주십시오. 팽아 좋은 윤심의 딸년과 금덕 딸년 차녀와 양녀를 정하시고 남종은 순비 형제 중에 늙은은 아들 낳는 것 주옵소서.²³⁾

22) 뜻시 님의 정허여소으나 다만 팽아가 비록 딸이나 양인의 가련한 골육이 그뿐이오니 근분을 싱각허온즉 귀함과 잔잉허오미 타인의 업소오니 층층존의(層層尊意) 엇지 범연허시리잇고마난 바라옵건디 존당은 손여로서 친여로 아오시고 시속여식(時俗女息)의 등녹을 마오시고 우리 츠자로 범스랄 각별이 익궁(哀矜)이 녀이시말 밋고 제 표이구비(表異具備)허온즉 도라간 어버이게 육이 밋지 아니허을 거시오 제 팔즈 순길허와 어진 가장을 만나 평성이 티평이 되온즉 혼백이 위로가 되오리니 복원(伏願) 존구난 성문법가(聖門法家)니 지술(才術)이 겸하와 영귀랄 누리면 제 부모의 후인(厚仁)이 님힘이 알게 하시옵소서

23) 양인의 약간 수용지물(需用之物)은 장년 아히가 쓸 거산 다 간수하고 식부의 함속 거산 다 별허와 길거(拮据)하면 십연 니 천여금이 되을 거시이 너두의 제 의논허압게 짜로 사축(私蓄)허게 하여 주압소서 호희라 사동 노친 정이 절박허오니 저랄 보아 식부 죄인으로 익선을 허압게 팽아랄 보니시면 위로가 되을 것시니 저 르란 도안 순섬을 정허여 보니시고 막섬은 예 두셔야 왔던 일홈이나 잇소오리다 사가간(私家間) 상의허겨 아버지 심전 은의를 온전이 허시와 정을 완전허겨 팽아랄 보시와 절신(絶信)을 마압소서 저랄 보니오나 노친이 전가(傳家)허시고 격수로 안즈 게오 이 제 오식(衣食)은 이우돕소서 팽아 좋은 윤심 딸년과 금덕 딸년 츠여와 양여랄 정허압고 남종은 순비 형제 중 늙은은 아달난난 것 주압소서

시부모에게 남긴 유서의 뒷부분의 핵심 내용은 위 ⑬과 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팽아’의 앞날에 대한 부탁, 여종들을 비롯한 유산의 지정과 그의 거취에 대한 당부이다. ⑬에서는 팽아가 ‘비록 딸이지만 양인의 가련한 골육은 그뿐’임을 강조하면서 ‘귀하고 가엾은 존재’이니 ‘손녀지만 친딸 처럼 여겨달라’, ‘각별히 애궁히 여겨달라’고 부탁한다. 또한 딸 팽아가 남편을 닮아 ‘표이구비’하며 재질이 뛰어나니 부모에게 욕이 미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증하는 말을 남기면서, ‘재술(才術)을 겸비한 어진 가장 만나 ‘괄자 순갈’하게 사는 것이 자신의 혼백을 가장 위로하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⑭는 이에 이어서 구체적인 유산과 팽아의 거취를 언급하는 대목이다. 유씨는 부부의 유산을 모두 팽아에게 물려줄 것이며 자신의 힘에 따로 비축했던 유산들을 처분한 ‘천여 금’ 또한 나중에 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따로 ‘사축(私蓄)하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또한 친정아버지인 ‘사동 노친의 정이 절박하니’ ‘팽아를 보내시면 위로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죽은 자신을 대신하여 딸인 팽아가 친정의 보살핌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한다. 일일이 여종과 남종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누구를 꼭 팔려 보내달라고 하기도 하고, 친정 부친이 ‘적수로 계시니 제 의식(衣食)은 알아서 보내달라’고 챙기기도 하며, ‘가문 간에 상의하여 절신(絶信)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남기기도 한다.

이러한 유씨의 유언은 이 유서의 생애 진술적 요소들이 서술되고 있는 배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혼자 남겨지게 된 어린 딸 ‘팽아’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해준다. 유씨의 유서는 딸의 앞날에 대한 걱정, 그에 대한 음우(陰佑)의 의식이 모든 것의 진술에 깔려 있는 유서인 것이다. 유씨는 딸에게 부모의 흔적을 남겨주기 위해 자신과 남편의 삶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며, 딸의 성장 환경을 친정으로 옮기고 경제적 기반을 예비해 주기 위해 시부모와의 긴밀했던 관계성과 신뢰 관계와 같은 생애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4. 결론-자기 생애 기록이자 존재의 증명 언어로서의 유서

열녀 유서는 죽음을 결심한 여성이 자신의 소회를 남기고 남아 있는 자들에 대한 당부 등을 전하는 글로, 원래 생애를 서술하는 성격의 글은 아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열녀의 유서에서 의도하지 않게 그 유서 작성자의 삶의 흔적과 관계성이 드러나게 되는 측면이 있음을 주목했다. 이 글에서는 이를 ‘자기 진술적 요소’라고 보고 열녀 유서에서 그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신씨부 유서와 남원 윤씨의 유서를 비교 차원에서 짚어보고, 산발적이고 파편화된 언술이지만 유서가 여성의 자기 생애에 대한 진술을 담고 있다는 점, 그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선시대 여성의 삶을 재구성하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 전형적인 여성상으로 뭉뚱그려지지 않는 하나의 개별적이고 독특한 인간으로서의 자아와 정체성을 드러내게 만드는 자료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은 서녕 유씨의 유서였다. 이 텍스트에서 유씨의 인간적 측면을 드러내고 자기 생애를 진술하는 핵심은 딸 ‘팽이’를 중심에 둔 맥락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 구체적인 특징으로 첫째, 유씨 부인의 유서에는 ‘남편과 자기 생애 진술’이라는 측면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 특히 자기 집안 배경에 대한 자부심과 남편의 이른 급제 사실, 그리고 지역에 널리 퍼졌던 명성 등에 대한 언급이 드러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부모의 부재 속에 커야 할 딸을 위해 부모에 대한 기억과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한 이유로 자기 생애 진술이라는 요소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둘째, 유씨 부인의 유서가 시부모에게 극진한 예의를 차리며 존경과 감사의 정을 표하고 동시에 자신이 며느리로서 신뢰와 인정을 받았음을 강조하는 생애 진술을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이는 곧 시부모에게 자기 부부를 대신하여 ‘팽야’를 각별하게 대해줄 것을 부탁하고자 한다는 것, 또 ‘팽야’의 앞날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의 거취를 자신의 친정 가문으로 옮기고 종들을 지정하여 팔려 보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서녕 유씨 유서의 자기 진술은 자기 자신과 그 생애를 드러내겠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이루어진 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서가 그 어떤 의도적인 자기 서사보다 압축적으로 이 인물의 삶의 핵심과 가치관을 드러내주는 자료임을 알게 해준다.

이 글은 열녀의 유서가 그의 생애와 개별적 인간상을 읽어보게 해주는 중요한 증언이자 그인물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를 드러내줄 수 있는 언어라고 하는 관점을 취하고자 했다. 유서는 개별적 존재로서의 여성들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살아갔던 다양한 삶의 모습들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과 존재의 증명을 보여주는 텍스트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글은 열녀의 유서가 단지 회한과 탄식만을 담고 있는 감정적 텍스트가 아니라 자신의 생애에 대한 진술을 담은 기록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기정진, 「열부유씨정려기」, 『노사집』, 한국고전종합 DB.
월촌문헌연구소 편, 「유씨부인 유서 권지단」, 『한글 필사본 고소설 자료 총서』
30권, 원광대학교 박순호 교수 소장본, 오성사, 1986. 181~213쪽.
위백규, 「귀락와서」, 『존재집』, 한국고전종합 DB.
임기중 편,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 DB.

2차 자료

- 김정경, 「조선후기 열녀의 순절의 의미화 방식 연구- 재녕 이씨, 남원 윤씨, 서
녕 유씨, 서흥 김씨 유서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53, 국제어문학회,
2011, 9~35쪽.
김호정, 「1920년대 영미 여성미술가들의 자서전 집필과 자기 서사에 대한 고
찰」, 『현대미술사연구』 42, 2017, 31~62쪽.
서경희, 「서흥 김씨에 대한 시선의 규율과 유서의 독법 -『중용록』을 중심으
로」, 『고전문학연구』 64, 한국고전문학회, 2023, 329~361쪽.
이수봉, 「규방문학에서 본 이조여인상」, 『여성문제연구』 1, 대구효성가톨릭대
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71, 1~33쪽.
이홍식, 「조선후기 사대부 여성의 유서 창작 양상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
구』 29,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4, 95~123쪽.
_____, 「조선시대 여성 유서의 사회문화적 기능과 의미 탐색」, 『한국고전여성
문학연구』 4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20, 79~110쪽.
임치균, 「서녕 유씨 부인 유서 연구」, 『고문서연구』 15, 한국고문서학회, 1999,
47~65쪽.
장영은, 「근대 여성 지식인의 자기서사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217쪽.
조혜진, 「조선후기 여성의 자기 서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231쪽.
진동혁, 「恭人 南原 尹氏의 〈命道自歎辭〉 研究」, 『論文集』 19, 단국대학교출판
부, 1985, 7~36쪽.
홍인숙, 「조선후기 순절 여성 신씨부 한글 유서 재론」, 『고문서연구』 45, 한국
고문서학회, 2019, 267~280쪽.
_____, 「열녀 유서에 나타난 감정 규범과 감정 통제의 기제- 신씨부 유서에

- 나타난 순응과 위반의 감정 언어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9, 71~100쪽.
- _____, 「아홉 통의 유서로 복원한 한 조선 여성의 생애: 열녀 남원 윤씨의 고독한 삶, 그리고 뜻밖의 우정」, 『내가 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여성의 자기 서사』,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엮음, 후마니타스, 2023, 17~58쪽.
- 황재문, 「『중용록』에 나타난 열녀 인식」, 『규장각』,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9, 155~172쪽.

ABSTRACT

A Study on Ms. Seonyeong You's Will
- Focusing on the Meanings of Self-Statement Shown in
Virtuous Women's Wills

Hong, In-sook

As a writing of leaving one's own feelings and requests after a woman decides to put herself to death, a virtuous woman's will does not originally describe her lifetime. However, this thesis paid attention to the aspect in which such virtuous women's wills unintentionally reveal the life traces and relationship of the will writer. Thus, this thesis takes a perspective in which a will has meanings as language and self-lifetime record in the traces of her own existence and lifetime. Especially, it aimed to examine that such 'self-descriptive elements' were significantly revealed in virtuous women's wills.

For this, this thesis intensivel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a will by Ms. Seonyeong You Family(1807~1831) who was a virtuous woman of the 19th century that has never been solely examined, as the text describing her own life. For this, this study comparatively reviewed the self-descriptive elements shown in other virtuous women's wills that were passed down, and then pointed out that the 'delivery of parents' lifetime for her daughter' and 'emphasis of relationship with husband's family and consciousness of secret assistance toward her daughter' were highlighted in Seonyeong You's will, unlike them.

This thesis aimed to point out that virtuous women's wills are not just writings that express their remorse and leave their feelings and requests when facing death. The virtuous women's wills would need to re-examined as the meaningful text as lifetime record and language for the important verification of existence, which enables us to recompose individual humanity and lifetime fragments of will writers.

Key Words Ms. Seonyeong You, women's will, virtuous woman, will, self-life record, self narrative

논문투고일: 2024.01.15.
심사완료일: 2024.02.02.
게재확정일: 2024.02.07.